

SDVNC '95에 다녀와서

김진오

(삼성종합기술원)

1995년 12월 5일부터 3일간 홍콩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Dynamics, Vibration, Noise and Control (SDVNC '95)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Chinese Society for Vibration Engineering과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및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가 주최하였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도 15개 후원기관 중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이 학술대회의 참가자들은 주최측인 중국과 홍콩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며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 호주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발표 논문들로 제작된 2권의 논문집에는 총 224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주제별로 structural dynamics, machinery dynamics, random vibration, non-linear vibration, modal analysis, vibration control, noise control로 분류되어 있다. 초청인사로 참석한 L. Meirovitch 교수의 keynote lecture인 "Position and Vibration Control of Flexible Robots"가 행사를 빛내 주었으며, 그 외에도 2편의 keynote lecture와 10편의 invited lecture들 중에 유익한 강

연이 많았다.

또한 주최측의 주도로 면밀한 사전 준비로 행사 진행이 원활하였고,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행사임에도 북미주와 유럽에서의 참석을 유도하여 국제학술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행사 전날 오후에 등록을 시작하면서 저녁에 카테일 파티가 마련되어 있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과, 행사 마지막날 저녁에 banquet이 있어 참석자들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한 것은 행사 일정의 치밀함을 엿보게 했다. 옥의 티라면 논문 발표 신청을 해놓고 불참한 사람들이 전체의 20%나 되어 참석자들을 실망시킨 점이다. 또한 banquet 도중에 무려 40분 가량을 주최측 인사들이 번갈아 나와 인사말을 하는 데 보내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중국 본토에서 온 참석자들의 발표를 듣다보면 그들의 이론연구가 상당한 깊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확고한 이론적 배경은 현재 개방화하는 중국에서 앞으로 응용 영역이 넓어질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감되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공학분야 학자들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응용연구에

더 많이 몰입하고 있고 국내 학술대회에서는 응용사례 발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론 연구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영역임을 절감하게 된다.

홍콩 기후 중 쾌적한 시기에 행사를 가져 며칠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좋았다. 함께 참가한 10여명의 한국인들과 공통의 주제를 매개로 친분을 나눈 것 또한 귀중한 기회였다. 짬을 내어 찾아간 Hong Kong Museum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본 여러 전시물 중에서 특히 standing wave를 설명하는 장치는 소리의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라 인상적이다. 금융과 무역의 도시로 생각하던 홍콩에서 과학 기술 분야 학문의 측면도 발견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동서양의 혼합, 빈부의 격차, 비싼 물가와 저렴한 음식값 등 양면성의 홍콩을 알게된 기회이기도 하다.

1994년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 WESTPRAC이 97년 11월에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라 한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997년 7월에 중국으로 주권이 복귀된 후의 홍콩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